

‘광주 인권상’ 수상 네팔 수실 파큐렐 씨

“광주는 민주주의 창... 오월정신 아시아에 알릴 것”

“광주는 민주주의를 바라는 우리 모두의 창(窓)입니다. 이 창을 통해 바마, 네팔 등지의 국가에 오월정신이 널리 퍼졌으면 합니다.”

파큐렐씨는 왕의 폭정에 항의하는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1990년대 초 수차례 구금당했으며, 2006년에는 왕권 체제 계승에 반대하는 시위를 조직했다는 이유로 출국금지 조치를 당하기도 했다.

표를 받고 있는 파큐렐씨는 ‘실종사건 수사를 위한 왕실위원회’로부터 공로를 치하하는 서한(1991)을 받았고, 국제포럼 잡지 ‘Antarastriya Manch’로부터 ‘훌륭한 사회운동가상’(1997)을 수상했으며, ‘억압받는 공동체 기구’에서는 불가촉천민 문제와 사회차별에 맞서 싸우는 운동에 동참한 공로를 인정받아 공로상(1998)을 받기도 했다.

사회주의-네팔 왕정 분쟁 종재

파큐렐씨는 네팔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권활동가이며 과거사조사위원회 대표다. 그는 네팔 절대왕정 체제 하에 자행된 비민주적이고 폭압적인 통치에 맞서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했으며, 마오이스트(사회주의자)와 네팔 왕정 사이에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해 종재자

로 활동했다. 그는 지난 1984년 네팔 최초의 인권단체 인권보호를 위한 포럼을 설립했으며 1987년에는 양심수석방후원회를 조직했다.

독재 저항할 수 있는 용기 준 5·18

파큐렐씨는 “네팔의 작은 도시에서 라디오를 통해 들은 1980년 광주의 소식이 당시 민주화운동을 벌이던 나에게 많은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다”며 “5·18은 나에게 영감을 주는 원천이며, 독재에 저항할 수 있는 힘의 원천이 되었고 아시아 국가에 널리 알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파큐렐씨는 “네팔의 작은 도시에서 라디오를 통해 들은 1980년 광주의 소식이 당시 민주화운동을 벌이던 나에게 많은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다”며 “5·18은 나에게 영감을 주는 원천이며, 독재에 저항할 수 있는 힘의 원천이 되었고 아시아 국가에 널리 알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수현 yang@kwangju.co.kr /사진=니명주기자 mjna@kwangju.co.kr

“편견 시달리는 한센인 자녀 설움 대물림 끊어야”

10여년간 한센인 자녀 후원 ‘참길 복지’ 이재우 대표

1916년 조선총독부는 한센병이 유전될 뿐 아니라 전염도 쉽게 된다고 고충소목도에 환자와 가족을 몰아내었다.

육지에서 생활하다가 결혼을 하려고 해도 부모가 한센인이라는 사실을 알면 상대 집안에서 퇴짜를 놓기 일쑤다. 80년 넘도록 한센인과 그 가족이 소목도를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다.



복도에 봉사활동을 가면서부터다. 봉사하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회사 일이 바빠 데다 방법이 잘 몰라 머뭇거리던 터였다. 3박4일간 소목도에서 지내고 집으로 돌아온 그는 일주일 동안 밤잠을 설쳤다. 새벽미사를 드리러 간 성당에서 풍기는 한센인 특유의 ‘향기’와 기도하는 모습이 충격으로 다가왔다.

지지 않았습다. 욕심 많은 나 자신을 위한 기도보다는 남을 위로하는 기도가 필요하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뭘지 곰곰이 생각했죠. 그때부터 소목도에 다시 가는 날이 기다려졌습니다”고 했다.

장흥서 한마음 체육대회 전남도 녹색어머니회

어린이들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순수한 봉사단체인 전남도 녹색어머니회(회장 서영란)가 20일 장흥 실내체육관에서 ‘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회는 전남 도내 22개 시·군 녹색어머니회 회원 300여명이 참석해 어린이들의 교통사고 줄이기 위한 결의문을 낭독하고 회원들의 단합과 친목을 다진다. /중부취재본부=김용기기자 kykim@연남뉴스

김관재 변호사 국민 모범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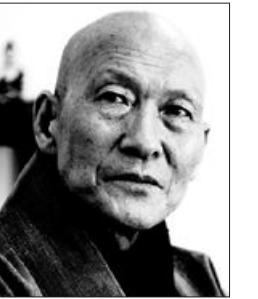
김관재 변호사(57·전 광주고등법원장)가 제9회 ‘21세기 국민모범인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사)21세기여성발전재원위원회(회장 이화성 호남대 설립자)는 각계에서 추천된 후보에 대한 심사를 통해 김 변호사를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법정 미출간 원고 63편 발견

불교신문, 올 연말까지 출간 계획

지난 3월11일 입작한 법정 스님이 남긴 미출간 원고가 무더기로 발견됐다. 대한불교 조계종 기관지인 불교신문은 “불교신문의 전신인 ‘대한불교’의 1960~1980년 사이 영인본을 조사한 결과 법정스님이 쓴 글 총 63편을 찾아냈다”고 18일 밝혔다.



불교신문은 이 글들이 1963년부터 1977년 사이 대한불교에 실렸던 것으로, 스님이 본격적으로 집필활동을 시작하기 전 초기 작품들이 많다고 전했다.

주로 한국불교 발전을 바라는 기고문과 칼럼들이며, 에세이와 시, 불교설화도 포함돼 있다.

법정스님은 1960년 불부터 이듬해 여름까지 통도사에서 운허스님과 함께 불교사전을 편찬하면서 글을 쓰기 시작했고 1963년 4월 대한불교에 ‘어진사슴’이라는 불교설화를 처음으로 기고했다.

이후 대한불교 주필과 논설위원을 맡았던 법정 스님은 1964년에 발표한 ‘부처님 전신사’, 이듬해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 1970년 ‘침묵은 범죄다’, ‘불한테는 미안하지만’ 등의 글에서 불교 내부의 부조리를 비판한다.

특히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에서는 “사문이란 도에 뜻을 둔 구도자이지만 오늘날 이 고장에 살고 있는 사문들의 생태는 우울할 뿐”이라며 “10대와 20대는 학교병에 들고 삼십대는 주지병, 4·50대는 안일병에 걸려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불교신문은 법정스님의 저작권을 승계한 사단법인 맑고향기롭게 측에 이번에 발견된 63편의 글을 묶어 올 연말까지 출간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연남뉴스

보혜덕천장학회 장학금 지급액 31억 돌파

보혜덕천장학회의 장학금 지급액이 30억 원을 넘어섰다.



보혜덕천장학회(이사장 임건우)는 18일 장성공장에서 광주·전남지역 고등학생 52명과 대학생 22명 등 모두 74명에게 ‘2010년도 상반기 장학금 7100만원을 전달했다. 지난 1981년 출범한 보혜덕천장학회는 이날 지급액을 포함해 지금까지 모두 3424명의 학생들에게 31억 3970여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기아차 골프대회 기금 장애청소년 단체 전달

기아자동차는 지난 17일 충남 천안 우정힐스 CC에서 ‘2010 기아차 자선골프대회’를 열어 참가자들이 마련한 1500만원을 청소년 지원단체에 전달했다.



이날 대회는 기아차 오피러스와 모하비 고객 140명이 참가했으며, 프로골퍼로부터 ‘원 포인트 클리닉’을 받고 와인 강좌를 듣는 시간도 마련됐다. 기아차는 경기 후 장애 아동 및 청소년 지원단체인 ‘애반젤리’에 기금을 전달했다. /박정국기자 jwpark@kwangju.co.kr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 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062) 2200-628 FAX (062) 222-4938, 222-4918

환측

▲이정훈·김춘미씨 차남 승우군 이영준(신안군 농업기술센터 소장)·김인자씨 장녀 지현양=22일(토) 오후 2시 규수당 6층(투비홀) 02-332-9000.

▲김재하·김정자씨 장남 민호군 정후재·박성희씨 장녀 이수양=22일(토) 낮 12시30분 목포상그리아 비치호텔 8층(대연회장)

▲조두길(전 KBS 광주총국)·서순심씨 장남 경상(치과의사)군 김동일(세무사)·홍인순씨 장녀 애진(치과의사)양=23일(일) 낮 12시 30분 상무리즈 컨벤션 웨딩홀 1층(아이비홀)

동창·동문회

▲손볼초등학교 39기(회장 임준호) 동창회=27일(목) 오후 7시 증심사 중머리제식당. 017-601-5866 (총무박종성)

▲조대부중 23기(0A)=27일(목) 오후 7시 증심사 중머리제식당 062-225-8252(규성재)

알림

▲여성발전센터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 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2010년 100원회 정기총회 및 제11회 소년소녀가장 장학금 전달=23일(일) 오전 11시 서창농협 3층 회의실(금호동소세 서구문화센터 건너편) 011-666-0660(김희만)

▲광주생명의 전화(대표 소진택) 24시간 전화상담(1588-9191)=월~금 오전 10시~오후 4시까지 일반 면접 상담, 위기 가족문제, 자녀문

제, 자살 등 상담. 062-223-9191. ▲사주 쉽게 배울 분 개인·단체 환영=광주시 북구 우산동 자담역 리하회. 062-263-0208.

▲광주동구건강가정지원센터=미혼모(부)자 지원사업 위기지원(출산·양육·응급상황발생시 아이 병원비·생필품), 상담, 정보제공 및 교육 프로그램등 다양한 서비스 지원 062-234-5792. (http://gdongfc.familynet.or.kr/)

모집

▲광주시 동구 전문봉사단 육성 교육생 모집=26일(수)~6월3일(목)까지 모집, POP에뿐글씨·풍선아트' 각 분야 15명씩, 전문가습 득 후 봉사활동 가능한 시민 선착순 모집. 062-228-1365.

▲엔자임 코리아 주식회사 관리자 모집=화장품 동종업체 경력자

우대. 062-524-0388. ▲진월간호전문학원 간호조무사 교육생 모집=국비지원혜택·고용보통가입 근로자 혜택. 062-653-6690~1.

▲생활 체육 배드민턴 회원 수시 모집=광주 북성중학교 오전반 5시 30분~7시30분. 011-618-7882.

▲보습이 무용학원 수시모집=발레·재즈·발송댄스 등 초·중·고등부 및 성인·취미반 모집, 차량운행. 062-955-4200.

▲무산 태권무예술원=영어·태권도(태글리쉬) 및 대체의료운동(비만,미용,양생,호신,경락심신법) 태권무지도, 남녀노소 3월개강(동구청소년수련관) 070-8235-5688, 010-3374-5699.

▲광주 외국인 홈스테이(Feel@Home) 호스트 모집=자립봉사활동에 관심이 있는 광주시 가정으로 한국인의 긍지를 갖고 외국인을 가

촉적력 대할 가정, 인종이나, 종교, 외국문화에 대한 편견이 없는 가정 등. 손님용 숙박 및 침구제공, 아침 식사 제공, 화장실, 주차시설 및 기본 가전제품 공동사용 가능한 가정. 문의 광주시 관공진흥과(062-613-3633), 광주국제교류센터(062-226-2734)

▲베메스다노인요양원 어르신들 모심=노인장기요양보호지정기관으로 편선형의 최신 시설로 건축, 비용 부담 없이 최신 시설을 이용하시며 전문적인 직원들과 자식같은 마음으로 어르신들을 모심. 061-371-8090.

▲무산 태권무예술원=영어·태권도(태글리쉬) 및 대체의료운동(비만,미용,양생,호신,경락심신법) 태권무지도, 남녀노소 3월개강(동구청소년수련관) 070-8235-5688, 010-3374-5699.

▲광주 외국인 홈스테이(Feel@Home) 호스트 모집=자립봉사활동에 관심이 있는 광주시 가정으로 한국인의 긍지를 갖고 외국인을 가

촉적력 대할 가정, 인종이나, 종교, 외국문화에 대한 편견이 없는 가정 등. 손님용 숙박 및 침구제공, 아침 식사 제공, 화장실, 주차시설 및 기본 가전제품 공동사용 가능한 가정. 문의 광주시 관공진흥과(062-613-3633), 광주국제교류센터(062-226-2734)

록·병선·병오·영순·경순·은순·형순씨 모친상=발인 19일(수)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3분향소. 062-231-8903.

▲김성용씨 별세 덕(나주방부의원)·경원(남보경)·정희·지연씨 부친상 김현숙(운리초등학교)씨 시부상=발인 19일(수)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1분향소. 062-231-8901.

▲강진성(전 서부경찰서장)씨 별세 명구·동현·가희·지희씨 부친상=발인 19일(수) 천지장례식장. 062-527-1000.

마음까지 편안함- 금호장례식장 227-4000. 하 이 옥 업 일(여: 72세) ... 하 김 귀 일(여: 82세) ... 참가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국가대표 브랜드 프리드 대한민국장례문화. 현대중앙상조가자랑하는 브랜드. 기입문의 1688-3740